

고1국어  
신사고

3(3) 성난 기계 -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유형 1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글의 갈래는 희곡이므로 희곡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등장인물

양희기(35세):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

김인옥(30세): 담배 공장 포장공

최상현(39세): 인옥의 남편

정금숙(28세): 간호사

때: 현대, 늦가을

곳: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A] 무대: XX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중략)

인옥: 선생님…….

희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희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

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희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희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희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희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희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감아 먹

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회기:** (측은해지며) 가시렵니까?

**인옥:**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간다.)

[B] (회기는 건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인옥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쏠고 있다.)

**회기:**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음…….

**금숙:** (채 알아듣지 못한 듯) 예?

**회기:**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정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숙:** 뭘 말씀이세요?

**회기:**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금숙:**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회기:** 왜?

**금숙:**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며) 저…… 선생님…… ㅎㅎ…….

**회기:** 응? 뭐야?

**금숙:** 선생님 별명이 뭇인지 아세요?

**회기:**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금숙:** 그럼요!

**회기:** 그래 뭔데?

**금숙:**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회기:**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금숙:** 옛날 스프링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회기:** (쓴웃음을 뱉으며) 스프링크스라…….

**금숙:**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회기:** 내가 스프링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금숙:** 원, 선생님두……. 스프링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 걸요…….

- '성난 기계'

1.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무대 위에서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 ③ [A]는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④ [B]는 등장인물의 말이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이다.
- ⑤ 공간적·시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고, 구성단위는 막과 장이다.

2.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뿐 아니라 배경, 의상 조명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의 성격과 인물의 심리 등을 전달한다.
- ⑤ 대사를 현재형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인옥은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를 기계와 같다고 말하고 상현은 견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힌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하며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회기:** (어이없다는 듯) 원……. 그럴 리가…….

**상현:** (완강히)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

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3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속:**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속:**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속:**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속:**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속:**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속:**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속:** (흘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속:**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속:**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ライター 불을 켜다.)

-‘성난 기계’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이다.
- ㄴ :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 ㄷ :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상황이 드러난다.
- ㄹ :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성이 강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효과음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관객에게 말을 걸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④ 소품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인물의 표정과 행동 지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윗글과 <보기>의 갈래상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떠난 뒤 회기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 금속은 말없이 그런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었다.

회기는 방금 전 상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아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다니.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회기는 인육을 살려 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남편이라는 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물론 수술 결과에 자신도 있었다.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에게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자신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짓는 금숙을 보며 회기는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 회기를 보며 금숙은 빙그레 웃었다.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는 달리 연극으로 공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윗글은 <보기>와는 달리 현재형으로 제시되어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
- ④ 윗글과 <보기>는 모두 서술자의 서술로 인물의 성격, 사건,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윗글은 <보기>와는 달리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직접 보여 주기 위한 문학 장르이다.

6.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이 지닌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어 사건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④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안의 인물들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7. <보기>는 윗글을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보기>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떠난 뒤 회기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 금숙은 말없이 그런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었다.

회기는 방금 전 상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아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다니.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회기는 인옥을 살려 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남편이라는 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물론 수술 결과에 자신도 있었다.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에게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자신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짓는 금숙을 보며 회기는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 회기를 보며 금숙은 빙그레 웃었다.

-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서술자가 사건을 전해 주고 있다.
- ③ 윗글은 <보기>와 달리 인물들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다.
- ④ <보기>와 윗글은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 ⑤ <보기>와 윗글은 모두 구성 요소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 최다 빈출유형 2

이 글의 갈래가 희곡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연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형태의 발문으로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인옥은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를 기계와 같다고 말하고 상현은 건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힌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하며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회기:** (어이없다는 듯) 원…… 그럴 리가…….

**상현:** (완강히)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몸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3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숙:**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ライター 불을 켜다.)

-'성난 기계'

8. 이 작품을 연극으로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세운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원이 배경인 만큼 병원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무대를 구성해야겠어.
- ② 상현 역을 맡은 배우에게 상현의 비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 ③ 조명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하고 회기만 밝게 비춰 회기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④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결정하는 장면에서 금숙의 놀란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를 부탁해야겠어.
- ⑤ 회기 역을 맡은 배우에게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표정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9. 윗글을 연출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무대는 병원으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② 상현은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연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③ 회기는 인옥과 대화할 때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고, 상현과 대화할 때 감정 변화를 잘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 ④ 상현과 회기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밝은 음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⑤ 금숙은 회기와 상하 관계에 있는 인물로, 회기의 권위에 굴복하는 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10.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한다고 할 때,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다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대 장치 :** ㉠ 무대는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단조롭게 냉랭한 흰 벽을 사용하도록 하고 큼직한 책상과 회전의자, 환자용 의자를 준비한다.

**의상과 분장 :** 회기는 흰 가운을 입고 냉정한 느낌을 주도록 안경을 쓴다. ㉡ 상현은 허름한 옷을 착용한 채 손가방을 쥐게 하고 관객에게 차가운 인상을 주도록 얼굴에 음영을 주어 분장한다.

**배우의 연기 :** ㉢ 회기는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고 의자에 기대어 상현에게서 몸을 멀리 떨어뜨리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이도록 한다. 한편 ㉣ 상현은 처음에는 낮은 말투로 시작하다가 대화가 진행될수록 반항심이 섞인 말투와 격렬한 손짓을 사용한다. 또한 ㉤ 회기에게 하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불안한 표정과 눈빛을 표현하도록 지시한다.

**음악과 음향 효과, 조명 :** 특별한 음악과 음향 효과는 사용하지 않고, 조명은 일반 병원처럼 밝게 비추도록 한다.

- ① 가, 다                      ② 다, 마                      ③ 가, 나, 라
- ④ 다, 라, 마                ⑤ 나, 다, 라, 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맥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맥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맥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중략)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에게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에게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몸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3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속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 '성난 기계'



11.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연출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 벽지를 흰색으로 하여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한다.

ㄴ : 회기는 흰 가운과 안경을 착용하여 냉정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ㄷ : 소품들을 잘 정돈된 상태로 배치하여 청결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ㄹ : 조명은 어둡게 하여 넉넉하지 않은 병원 재정 상태를 나타내도록 한다.

ㅁ : 인옥은 창백하게 분장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① ㄴ, ㅁ
- ② ㄱ, ㄴ, ㄷ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맥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맥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맥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 알맹이는 어찌 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중략)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회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회기:** (어이없다는 듯) 원…… 그럴 리가…….

**상현:** (완강히)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यो?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

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몽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3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중략)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흘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성난 기계’

12.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회기의 모습에서 단호함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투로 연기해주세요.

② ㉡ : 임시방편으로 약을 처방하려는 회기를 비판하는 어조로 인옥의 모습을 연기해주세요.

③ ㉢ : 돈 때문에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서 자책하는 상현의 모습을 연기해주세요.

④ ㉣ : 점점 감정이 고조되는 회기의 내면 심리를 고려해서 연기해주세요.

⑤ ㉤ : 예상하지 못한 명령인 것처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해주세요.

### 최다 빈출유형 3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중심인물인 ‘회기’, ‘상현’, ‘인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므로, 지문 정독을 통해 이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희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맥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 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맥의 손처럼…….

**인옥:** ㉢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맥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 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값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회기:** (촉은해지며) 가시렵니까?

**인옥:**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속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간다.)

(회기는 견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인옥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의 금속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쏠고 있다.)

**회기:**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음…….

**금속:** (채 알아듣지 못한 듯) 예?

**회기:**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정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속:** 뭘 말씀이에요?

**회기:**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금속:** (과장된 표정으로) ㉣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회기:** 왜?

**금속:**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며) 저…… 선생님……. ㅎㅎ…….

**회기:** 응? 뭐야?

**금속:** 선생님 별명이 뭇인지 아세요?

**회기:**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금속:** 그럼요!

**회기:** 그래 뭔데?

**금속:** ㉤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회기:**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금속:** 옛날 스프링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회기:** (쓴웃음을 뱉으며) 스프링크스라…….

**금속:**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회기:** 내가 스프링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금속:** 원, 선생님두……. 스프링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 걸요…….

- '성난 기계'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는 회기의 이기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 ② ㉡ : 회기는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다.
  - ③ ㉢ : 인옥이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④ ㉣ : 금숙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인옥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 ⑤ ㉣ :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냉정한 모습을 가진 회기를 나타낸 별명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좋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숙:** (편지를 쓰다 말고) ㉠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ライター 불을 켜다.)  
 -'성난 기계'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기는 그 친구(상현)에게 분노심을 느끼고 있다.
  - ② 정 간호사는 회기의 태도 변화를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 ③ 정 간호사는 회기가 인옥을 수술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 ④ '포장'은 인간의 겉모습을 '알맹이'는 인간의 내면(인간성)을 상징한다.
  - ⑤ '속달 우편'에는 인옥을 빨리 수술하고 싶은 회기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15. 밑줄 친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 ② 담배는 '상현'의 경제력으로 직접 구입했음을 의미한다.
  - ③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보다는 인격이 없는 담배가 더 진솔하다.
  - ④ 비인간적이었던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비인간적인 '상현'보다는 '회기'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인옥은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를 기계와 같다고 말하고 상현은 견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힌다.

##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등장인물의 말이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를 방백이라고 하지만, 해당 부분은 그러한 방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희곡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희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 ③ [A]는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해설에 해당한다.
- ⑤ 희곡은 공간적·시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고, 막과 장 단위로 구성된다.

### 2. <답> ④

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의 성격과 인물의 심리 등을 전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 ① 희곡은 여러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 ②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갈래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③ 희곡은 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배경이나 의상 조명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
- ⑤ 희곡에서는 대사를 현재형으로 제시하는 현재진행형의 문학으로, 사건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 3. <답> ②

ㄱ : 이 작품은 수술을 해 달라는 인옥의 부탁을 회기가 냉정하게 거절하는 전반부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의 태도에 회기가 분노하며, 인옥의 수술을하기로 결정하는 후반부가 대립된다.  
 ㄷ : 이 글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상황이 드러나는 희곡이다.

ㄴ : 이 작품은 희곡이므로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ㄹ : 이 작품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해소가 되며 마무리된다.

### 4. <답> ⑤

이 글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이 글에서 다양한 효과음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이 글은 희곡이므로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서 인물의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 소품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5. <답> ④

서술자는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윗글은 희곡이므로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희곡과 소설은 모두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
- ② 윗글은 희곡이므로 소설인 <보기>와 달리 연극으로 공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희곡인 윗글은 소설인 <보기>와는 달리 현재형으로 주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살린다.
- ⑤ 윗글은 희곡으로 소설인 <보기>와는 달리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직접 보여 주기 위한 문학 장르에 해당한다.

### 6. <답> ②

이 작품에서 회기와 인옥 사이의 대화를 통해 회기의 성격이 부각되었다.

- ①, ③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④ 이 작품에서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안의 인물들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이 작품은 희곡이므로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7. <답> ②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회곡인 윗글이 아니라 소설인 <보기>이다.

- ① 회곡인 윗글은 소설인 <보기>와 달리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 ③ 회곡인 윗글은 소설인 <보기>와 달리 동작 지시문을 통해 인물들의 동작을 지시한다.
- ④ 소설인 <보기>와 회곡인 윗글은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 ⑤ 소설인 <보기>와 회곡인 윗글은 모두 구성 요소로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8. <답> ③

수록 부분에서 회기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병원이므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 ② 이 작품에서 상현은 아내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물이므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 ④ 이 작품에서 회기는 냉정하게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으나, 상현을 만난 후 태도가 변했으므로,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결정하는 장면에서 금숙이 놀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 ⑤ 이 작품에서 회기는 상현을 만난 후에 심리 및 태도가 변화한다. 따라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9. <답> ③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회기는 인옥에게 냉정하게 인옥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리고 회기는 상현과의 대화에서 상현의 태도에 감정 변화가 생기면서 분노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 ① 병원을 배경으로 하므로 무대는 단조롭고 냉랭한 느낌의 흰 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② 상현은 자신의 생각을 회기에게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으므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상현과 회기가 대화하는 장면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금숙과 회기가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지만, 금숙이 회기의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10. <답> ②

㉔ 회기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태도의 상현에게 점차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㉕ 상현은 회기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㉖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병원이므로 무대는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단조롭게 냉랭한 흰 벽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㉗ 이 작품에서 상현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냉정한 성격이므로, 상현은 허름한 옷을 착용한 채 손가방을 쥐게 하고 관객에게 차가운 인상을 주도록 얼굴에 음영을 주어 분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㉘ 상현은 처음에는 아내의 수술을 거절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왔으므로, 낮은 말투로 말했지만, 점차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1. <답> ④

ㄱ :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병원이므로 무대는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단조롭게 냉랭한 흰 벽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ㄴ : 인옥과 회기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회기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출 계획은 적절하다.

ㄷ : 이 작품에서 회기는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회기가 일하는 병원이 소품들을 잘 정돈된 상태로 배치하여 청결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ㄹ : 인옥은 매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창백하게 분장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이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르 : 이 글에서 병원의 재정 상태로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12. <답> ③

㉔에서 돈 때문에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서

상현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자조하는 것이다.

① ㉠에서 회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인옥에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출자의 지시는 적절하다.

② ㉡에는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 약을 처방하여 임시방편으로 삼은 회지의 태도를 인옥이 비판하는 어조가 담긴 것이다.

④ ㉢에서 회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연출자의 지시는 적절하다.

⑤ ㉣은 인옥의 수술을 실시하겠다는 회지의 태도에 당황한 것이므로, 해당 연출자의 지시는 적절하다.

13. <답> ④

㉢에서 금숙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인옥의 모습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옥이 짧은 시간에 회지의 성격을 파악한 것에 놀란 것이다.

① 자신 없는 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에서 회지의 이기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② 회지는 인옥이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였다.

③ ㉢에서 말하는 '내 손처럼'이라는 것은 앞에서 '회지'가 말한 직업이 사람을 기계로 만든다고 한 것으로 인옥이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에서 말하는 스피크스는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냉정한 모습을 가진 회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별명이다.

14. <답> ③

정 간호사가 회지가 인옥을 수술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라는 대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담배'는 인간을 '포장'은 겉모습을 '알맹이'는 내면(인간성)을 상징한다.

⑤ 회지가 '속달 우편'으로 인옥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인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15. <답> ①

'담배'가 진짜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②, ③, ④, ⑤ 모두 해당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16. <답> ⑤

회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상현의 태도에 점차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시하게 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결국 인옥을 꼭 살리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① 인옥은 혼자서 회지를 찾아왔다.

② 회지가 인옥을 치료하기 위해 인옥의 서술을 거부하는 상현을 설득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상현은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술을 반대한다.

④ 금숙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망설이는 회지를 설득한 것은 아니다.

17. <답> ②

인옥은 상현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상현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인옥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시를 받으면서도 상현이 아내를 믿어 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말하는 '나와 어린것들이 ~ 그 덕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상현'과 자식들이 부인 덕으로 살아왔다는 것으로, 인옥이 상현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회지가 인옥의 수술을 냉정했었는데, 상현에게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금숙은 의아함을 느낀 것이다.